

2024년 10월 16일

HSBC, 교보증권과 ESG KPI 연계 파생상품 거래

HSBC 코리아 글로벌 마켓팀은 교보증권과 미화 1천억원 규모의 2년 6개월 만기 ESG KPI 연계 파생상품 거래를 최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교보증권이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ESG KPI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ESG 금리가 조정된다. 만약 교보증권이 목표를 달성하면 약정 금리에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약정 금리에서 일정한 금리를 차감하는 구조이다.

이 상품은 ESG 중에서도 환경(Environmental)과 소셜(Social) 영역의 3개 KPI에 연계되어 있다. 환경 KPI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글로벌 타겟에 따른 교보증권 목표에 맞춰져 있다. 즉, 만기까지 온실가스 Scope 1 (직접배출)과 Scope 2 (간접배출)를 18% 감축해야 한다. 이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절대량 감축 방식에 따른 것으로,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서 감축량을 검증한다. 소셜 KPI는 경영진 중 여성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연계되어 있다.

피터 김 HSBC 코리아 대표는 “고객이 ESG KPI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가산 금리를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리를 차감하는 이 맞춤형 솔루션에는 고객의 탄소제로 전환 계획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성공적으로 전환 계획을 달성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거래의 의미를 강조했다.

교보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3번째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바 있다.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본부장 010 9038 2437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60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자산은 2조 9천 7백 5십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